

작품 내용

제 목	작사 작곡 김순자
내 용	강의실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계약이 불공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 예술가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아이들은 큰 관심은 없는 듯했다, 하지만 유독 서아는 달랐다.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진 창작물도,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 둘 강의실을 빠져나간다. 서아는 가방을 챙겨 학교 근처의 작은 주택가로 향한다. 낮은 대문 앞. "할머니, 저 왔어요." 대답은 없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 집 안은 사람의 온기마저 숨을 죽인 듯 적막에 잠겨 있었다. 잠시 둘러보던 서아는 문득 창고 정리를 도와 달라던 어머니의 부탁이 떠올랐다.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다락 창고로 발걸음을 옮긴 서아는 이리저리 상자를 정리하던 중, 구석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견뎌 온 듯한 낮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누렇게 빛바랜 공책 한 권, 그리고 여러 장의 DVD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위에 놓인 공책의 표지에는 세월에 바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순자의 일기』 서아는 호기심에 첫 장을 넘긴다. 옆에 있던 DVD도 재생기에 넣어 본다... 흑백 영상 속 젊은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화면 속 얼굴을 본 서아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 서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영상 속 순자는 지금의 주름진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화면 속 순자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서아는 다시 일기장을 펼친다. 1974년 3월 12일... "내 이름은 김순자. 스무 살.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좋다." 시골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린다. 순자는 품에 악보 공책을 꼭 안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는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하지만 그 노래는 자신의 것이 되지 못 할 거라는 것도.

서울에 올라온 순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음악다방에서 노래했다. 고된 하루가 끝날 때마다 목은 쉬어 갔지만, 노래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우리 회사에서 키워 드리겠습니다."

팬스레 긴장감이 밀려왔다. 순자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데뷔하려면 다 하는 절차입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해요."

도장을 찍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순자는 그것이 실렘 때문이라고 믿었다.

서울에서 드디어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뿐이었다.

몇 달 뒤, 그녀의 노래 -00000 라디오에서, 다방에서, 연인들이 걷는 골목에서. 그러나 순자에게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는 노래의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렸다. 항의하자 그들은 서류를 꺼냈다. "당신이 직접 찍은 도장이 여기 있잖아요."

순자는 무대에서 사라졌다. 노래만 남았다.

서아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다. 『바람꽃 - 1974년』

결과가 쏟아졌다. 검색 결과에는 여전히 〈바람꽃〉이 있었다. 하지만 작사·작곡은 낯선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할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락에서 상자 찾았어요. 공책이랑 DVD요. 할머니, 저 영상 봤어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래 많이 놀랐겠구나 근데 서아야."

"바람꽃, 할머니가 만든 노래잖아요.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이미 지난 일이다."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라고요."

할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날 서아는 선생님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이 말했다.

"그 공책, 악보가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라면 어찌면..."

집에 돌아와 다시 공책을 펼쳐 보았다.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며 느껴지는 듯한 할머니의 글씨. 여백에 빼곡히 적혀 있는 메모들...

이건 분명히 할머니의 것이었다.

서아는 저작권 상담 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분명했다.

"증거가 있으면 검토는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됐다, 서아야. 그 시절엔 다 그랬어."
 "그러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랑 싸울 수 있는 건 다르단다."
 말이 너무 날카롭게 나온것 같았다.
 "하지만... 그 노래는 할머니의 노래잖아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노래를 만들 때 말이야. 옆에서 늘 내 노래를 들어주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 내가 울면 같이 울고, 언젠가는 꼭 네 이름으로 남을 노래라고 웃어주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아이도 세월 따라 연락이 끊겨 버렸단다."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였다.
 "그래,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노래 옆에 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싶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조금.
 서아는 할머니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달 동안 서아의 책상에는 악보와 판례, 오래된 신문이 쌓여 갔다.
 "서아야... 나는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다."
 "할머니, 우리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법정은 끝내 감정보다 증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아는 일기장 속 한 이름을 끝내 놓지 않았다.
 그 이름은 오래전 순자의 곁에서 노래를 들으며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였다.
 순자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칠 것 같은 마음으로 재판정을 바라봤다.
 상대 회사 측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은 본인의 서명과 도장으로 체결됐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낡은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들어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파일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계약서 사본 한 장이 있었다.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여기를 보면 계약 당시 순자 모르게 추가 했던 '저작권 양도 조항.' 그리고 그 아래 적혀있는 수정된 서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본은 더 이상 낡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50년 동안 멈춰 있던 할머니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단 하나의 열쇠였다.
 재판부는 그 사본이 가진 정황적인 증거와, 또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작곡 과정과 빼곡한 메모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아야 노래 되찾을 수 있기는 한 걸까?"
 "할머니 너무 걱정 마요 잘 될거예요"
 그리고 어느 봄날, 결정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서아가 봉투를 뜯었다. 할머니는 옆에서 괜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내밀었다.

	작사·작곡 : 김순자 할머니는 한참 그 줄을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한 번 짚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도 울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봄별이 드는 창가에서. 그해 여름,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조용히 한 노래가 올라왔다. 〈바람꽃〉 - 작사·작곡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은 그렇게 손을 꼭 잡은 채, 오래도록 그 이름을 바라봤다. 유난히 긴 밤이었다.
--	--